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4 '공감' 2번	작성자	익명 님
------	--------------------	-----	------

[문항 2]

1.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욕구와 관점을 지니고 살아간다. 따라서 다양한 어둠이 한데 부대껴 나아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의 충돌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러한 충돌과 그로 인해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공감이다. 2. 진정한 차원에서의 공감이 실현되기 위해선 공감적 상상력, 주체의 인식변화, 그리고 폭력의 지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3. 우선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공감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와 같은 상황에서 뤼카온의 상황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힘들다. 그렇기에 죽음이란 대상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해 이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고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바로 (가)와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진정한 공감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4. 다음으로는 주체의 인식변화이다. 이전 단계를 통해 주체가 대상의 상황을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주체의 생각이 이전과 그대로라면 이러한 이해는 역시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다)의 아킬레우스가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공포에 공감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그를 죽이겠다는 본래의 결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결국 이는 공감의 유무와 관계없이 똑 같은 결과를 양산하는데 그치고 말게 된다. 따라서 공감 이후엔 그에 상응하는 주체의 태도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이 개입되어선 안된다. (라)의 워딩턴이 말하듯 폭력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으로, 이는 짐승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공감의 정의가 타자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란 점을 고려하자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폭력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와 달리 (다)가 뤼카온과 공감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살해란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세가지 조건이 올바르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첨삭 포인트]

1. 의미 없는 문장 서술은 삭제해주세요.
2. 이러한 결론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제시문들에 위와 같은 요소들을 대입 해 얻은 결론이 아닌 주관적 결론으로 논리성이 없으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3. 문단 자체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뤼카온은 공감이 이루어 졌다는 것인지, (가)는 왜 상상력이 부재하는지 근거 서술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장 또한 무엇인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발문에서 제시한 '주체'는 각 제시문의 주체인 아이히만, 아킬레우스가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써 행동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발문입니다. 따라서 아이히만은 주체성이 결여되었죠. 아킬레우스는 주체성이 존재하구요. 왜 주체의 인식 변화로 서술한 부분은 주관적 해석입니다.
5. 형식 자체도 제시문 (가), (다), (라)에 주체, 상상, 폭력의 개념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D-

총평	결론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한 제시문의 분석에 의해 도출되지 않았으며, 근거 서술과 형식도 발문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관적 해석에 의한 답안은 합격의 가능성이 낮으니, 제시문에 근거한 답안 서술이 요구됩니다.
----	---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 述)